

◆The Practice and Utility of the Traveling Libraries in Community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동문고운영의 실제와 그 효용

양 동 균

(광주전일도서관장)

I. 서 언

영국의 도서관학자 Lionel Mc Colvin은 도서관의 진가(眞價)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첫째가 되는 것은 서어비스(Service)라 하였다. 영어의 Service를 우리는 奉仕로 번역하여 쓰고 있다. 이 말은 소극적,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 대가를 생각치 않고 기여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이 바로 현대 도서관이 취해야 할 방향이며 자세이다. 도서관을 차려놓고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이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서 읽고 보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 효율적 방법으로 생겨난 것이 분관(分館)이며 「이동문고」라고 할 수 있다.

본론은 그 이동문고가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떻게 효용되었으며,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해 보려는 것이다. 이동문고의 실제를 1970년 8월 전남 광주의 전일도서관이 개설한 이동도서관(Traveling Libraries)을 찾아 보려한다. 전일이동도서관이 바로 이동문고인 까닭이다. 이동문고가 도서관자료의 일부를 대외에 일정시간 접촉시키는 것이라면 이동도서관은 도서관을 축소시켜서 대외와 접촉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II. 이동도서관

전일이동도서관이 시원한 가을철에 발족을 하지않고 삼복(三伏) 더위가든 8월에 시작된 것은 까닭이 있었다. 여름방학이 되어 시골의 자기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뒤를 쫓아가서 학교에서 배우는 이외에 책에도 취미를 붙이게하고, 동시에 산간벽지 주민들에게도 도서관이 화중지병(畫中之餅)이 아니라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더 큰 동기는 전라남도란 지역이 거의 도서관 부재(不在)의 현상이고 50만 인구의 광주에 공공도서관이 존재치 않았던 것이다. 학생회관 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시

민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관(70년 4월 25일) 3개월밖에 안된 전일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침투하여 독서의 추진과 도서관자료의 활용운동을 통하여 그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지식, 정보, 교양, 오락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향상과 주민들로 하여금 민주적 생활이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그 시민사회에 자기를 적응(適應)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이동도서관을 개설한 것이다.

전일이동도서관은 영사기, 환동기, 녹음기, 확성기 및 필름, 슬라이드 등 비도서자료로 한차원(次元)을 이루고, 도서자료의 책장과 열람석을 자체에 갖는 자동차문고(Book-Mobile)란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자동차 문고는 도시의 유원지나 도시근교의 도로사정이 좋은 곳에 동원되며 길이 좁은 자연부락이나 벽지에는 영사차에 책장까지 싣고 따로 직원용 승용차가 따른다. 보통 일일권(一日圈)의 거리에 있는 장소가 선택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박이일(1泊2日) 동안 체재하기도 한다. 전자는 자연부락이 대상으로 되는 경우고, 후자는 대중이 많이 모이는 원거리의 피서지나 명승지가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일이다.

1. 자료와 대상의 선정

이동도서관에 있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료와 대상의 선정이다. 두가지 작업은 함수(函數)관계에 있다. 그 대상이 필요로 하는 자료라야하고 이해하고 흥미를 일으키는 자료라야 한다.

대상의 선정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나 사실은 선정의 목적이 효과에 있는만치 이상할 것은 없다. 대상의 선정은 언제나 주, 객관적 상황이 선행(先行)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전국에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마무리 되고있는데도 있다. 잘 되고 있는데도 있는때 부진한때도 있다. 우선 그 부진한 곳의 대표적 자연부락을 선정한다. 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알아낸다. 새마을 운동의 지도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가,

주민에 어떤 결합이 있는가 조사 연구한다. 기본적으로는 자연적 환경, 사회적 구성, 경제적 조건 및 정치 종교의 성향과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조사, 문화단체에 대한 조사 그 지역지식인의 조사, 그리고 독서의 종류와 분량, 읽고 싶어하는 책을 알아낸다. 기본적 조사인 자연환경은 대상지역의 경지면적, 입지조건, 교통관계, 사회적구성은 인구, 성별, 연령별 그 지방의 연혁 및 행정기관, 풍속, 연중행사, 경제적 조건으로서는 업종별 종사인구·자본과 그 운영방법·산물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생산고, 계절적 배분, 수입지출의 정도가 조사된다. 정치나 정당에 대한 관심도와 어떤 종교가 있는가. 신문이나 라디오는 얼마큼 이용되고 있는가, 어떠한 학교가 있으며 어느만큼 취학하고 있으며, 관심도는 어떠한가, 사회, 문화단체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느만큼 참여하고 있는가. 그 지역의 지도자는 누구며 지식인은 얼마만한 수며 어떠한 성향(性向)에 있는가. 독서의 조사도 한다. 이와 같은 조사는 도서관 소장의 자료와 신문사의 조사부자료 및 도서관을 이용하러 온 사람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조사의 내용을 분석, 그 결과에 따라서 자료가 선정된다. 다시 청자자료는 도서관 자체가 제작한 슬라이드와 판공서 혹은 그 방계단체에서 제작한 필름 혹은 미국공보원 도서실이 소장하고 있는 필름가운데서 적절히 선정하여서 쓴다.

2. 운영의 실제

운영의 실제는 1970년 8월 5일 광주시 본촌동에서 가진 이동도서관의 경우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가. 계획서

「1970년도 하계전일이동도서관」 계획은 도서관이용의 태반수인 학생들이 방학으로 향리로 돌아가고, 여름에는 흔히 시원한 마을정자(亭子)나 정자나무밑에 사람이 모인다고보아서 그속에 파고들어 학생들에게는 교과이외의 책에도 흥미를 갖게하고 주민들에게는 8월동안의 농사일과 직결된 도서를 읽게하고 또한 오락을 주어 도서관과 책에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을 취지로 하였다. 이와같은 전제에서 광주시 변방의 6개 농촌시대와 인접군에서 3개지역이 예정되었다. 그와같은 선정은 당일본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일 것, 이동도서관의 장소가 근처에 많은 자연부락이 있을 것도 참작이 된 것이다.

이동도서관의 구성은 자료를 적재하고 영화와 슬라이드 상영에 필요한 영상차 한대, 직원승용차로 구성되었으며 자료의 선정은 그 지역에 대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준비되고, 총무열람의 세부계획까지 세워졌다. 이와같은 계획은 시행 12일전에 세워졌고 그동안

에 현지조사와 자료의 준비가 되었다.

나. 사전 조사

8월 5일 본촌동의 경우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① 본관과의 거리 9km
- ② 순수농촌·교통불편
- ③ 인구 8,026 남 4,221 여 3,805
1,147가구, 지산출장소 관내
55세이상 1,888 45세이상 1,288
30세이상 2,652 15세이상 4,448
5세이상 5,568 4세이하 1,872
- ④ 농가 929 비농가 233
미곡 308단서 4,476톤 생산
맥류 246단서 4,390톤 생산
잡곡 51단서 42톤 생산
두류 53단서 226톤 생산
서류 464단서 481톤 생산
소채류 1,400단서 4,026톤 생산
특용작물 75단서 14톤 생산
과실류 544단서 69톤 생산

이밖에도 상전변적, 연연초 수납실적, 금비수요실적, 자급비료생산실적, 농약수요실적, 농기구보유량, 수리현황, 개간사업, 경지정리사업실적이 조사되었다.

- ⑤ 지산국민학교 14학급 교사 15 학생 926·지산중학 1학급 학생 60 조금여유있는 사람은 광주 도심지 중·고교에 다니고 있다.
- ⑥ 많은 저명인사를 배출
- ⑦ 젊은이는 거의 광주도시에 생활수단을 가지며, 농사는 지어서 식량으로 가져가고 있다.
- ⑧ 문화단체나 기관도 광주도시에 의존, 발달이 안되고 있다.

이와같은 조사자료를 근거로해서 다음과 같이 자료의 선정이 되었다.

다. 선정된 자료

총도서 300권을 아동부문에 20% 노장층을 위한 고전부문에 20% 교양과 농사기술부문에 40% 오락부문에 20%로 배분하고 슬라이드는 “도서관의 이용과정” “도서관자료의 정리과정” 필름은 “기계화된 미국의 농업” “새 강산”이 선정되었다(선정 도서목록 생략)

르. 도서 열람

본관에서 오전 9시 출발, 10시 조금 지나서 현지에 도착, 호기심으로 모여든 주민의 협력을 얻어 차도에서 100미터쯤 떨어진 마을 정자로 책꾸러미등을 운반, 휴행한 전시서가에 아동·고전·교양·기술·오락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정자 앞에 「하계전일이동도서관」이라 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영상차는 그 마을과 인근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동도서관의 도착을 알리고

밤8시부터 지산국민학교 교정에서 영사회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는 동안 총무직원 1인, 열람직원 2인은 그 마을의 동장에게 의뢰하여 열람사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반장이나 고학년생 5명을 추천케하여 임시 보조직원으로 위촉, 이동도서관용 도서열람 신청권을 내주었다. 현지의 보조직원은 도서의 대출 및 회수에 책임을 졌다. 열람 장소는 정자안이나 주변 나무 밑 그늘로 한정, 마을로 가져가지 못하게하고 열람신청권은 일련번호를 붙여, 서명, 성명, 연령, 성별, 마을이름을 기입하게 되어있고 같은 내용의 한쪽은 직원이 갖고 한쪽은 신청자가 갖도록 되어 있다. 일련번호는 아동·교전·교양·기술·오락별로 따로 매겨졌다. 이용자에 의한 도서의 선택은 책의 제목을 볼 수 있게 5개의 전시가에 배열되어 있어서 아동은 아동도서 전시가로 모이고, 일반은 교양도서 전시가로 모여 혼잡이 방지 되었다. 본관 출장의 직원은 신청자가 열을 지어서 서게하는 외에 열람자 속을 순회하며 책의 오손을 감시하는 일을 봤다. 점심시간에는 일단 반환하였다가 다시 빌려보도록 했다. 약 20% 수만이 다른책의 열람을 신청하였고 아동들은 3권까지 읽어치웠다. 오후 6시경에 모두 회수하고 영사회 준비를 시작했다.

영사회에는 의외로 많은 수가 모여들었다. 들농사일에서 돌아온 부녀자들도 많았다. 이동도서관의 목적과 상영될 슬라이드와 필름의 제목을 확성기로 알리고 নিজ 그 마을동장의 환영인사가 있었다. 자기 생전 책을 가지고 와서 보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고마운 일이라면서 모인 주민들에게 조용히, 열심히 봐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직원과 현지의 보조직원 합해서 8인은 전일도서관 자체에서 만든 “농사기술”이라는 책자를 무료로 나누어 주고(약 400권) 농촌진흥원에서 발행한 “호박가꾸기” “비료 사용법” “농약 사용법” 등 23종에 이른 한장으로된 인쇄물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전일도서관 자체에서 만든 “농사기술은 도서관 소장의 자료를 근거로해서 제1권이 엽채류(葉菜類) 제2권이 근채류(根菜類) 제3권이 과채류(果菜類) 제4권이 온상육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담은 것이다. 버리지 않고 벽에 걸어두고 보게하기 위해서 책의 구석에다 자그마한 구멍을 내놓았다. 농촌진흥원이 제공해 준 자료는 이동도서관의 취지를 설명해 준 즉 8월동안에 농가에서 필요로하는 자료를 골라서 보내는 것이다 시청각 봉사사업은 밤10시에 끝났으나 주민들은 돌아가려하지 않고 직원들이 짐을 모두 꾸러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작별을 고해주었다.

3. 효 과

이상과 같이 운영되어온 이동도서관의 효과는 의외

로 대단한 것이 없다.

1970년도 하계전일이동도서관은 8월 한달동안 광주시 주변 6개 농촌부락과 인접 3개소에서 2만 2천5백29회에 걸쳐 도서열람을 시켰으며 도합 2만7천32백명에게 시청각 봉사를 했으며 1만9천3백51명에게 “농사기술”책자와 농업기술 자료를 무료배부했다. 연53명의 직원이 117시간동안 530리를 이동하며 봉사활동을 한 것이다. 본도서관의 직원이 이동도서관에 동원 될 때에는 도서관안의 「전일독서회원」이 보조근무를 해주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하계이동도서관이 끝나고 추계 이동도서관 활동이 끝난 한달이 된 그해 12월말 현재 9개 순회지역의 8개국민학교중 도서실이 없던 7개국민학교중 3개국민학교에 도서실이 개설된 것이다. 개설된 국민학교의 국어교사를 말에 의하면 가난한 농촌지대라 교과서 이외의 책을 읽어 볼 기회가 없었던 아동들이 전일이동도서관이 빌려준 책을 읽어보고, 그들의 부모더러 그런 책을 사달라 했고, 육성회에 나온 학부모들이 귀여운 자녀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기 위해 학교에 도서실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가치 특기할 것은 노장(老壯)층 들인데 이동도서관때 읽다만 책을 다 읽기 위해 일부터 도서관을 찾아온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마을의 노인답게 대출을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전일도서관이 순회한 지역이 고향이며 시내에서 하숙을 하고있는 학생들은, 자기고향집 안방벽에 전일도서관 편찬 “농사기술” 책자가 걸려 있는 것을 즐기 전하여 주었다. 그 책에 제1호 라적어 두었기 때문인지 제2호가 나오는 시기를 묻는 주민도 있었다. 농촌진흥원이 후원하여 준 농업기술 낱장의 인쇄물도 버려지지않고 농사기술 책자속에 붙이어져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학생이용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다.

책과 도서관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필요를 느끼게 하는데 있어서 이동도서관은 분명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Ⅲ. 문 제 점

이동도서관에 있어서 제일로 큰 문제는 장비와 경비다. 있는 장비이므로 문제될 것 없을 것 같으나 기사에 급료를 지불해야만 하고, 운반 수리비도 도서관경상비의 지출을 상회한다. 이는 설립자인 회사의 지불로 되어 있는 것이나 그 지출로 도서관자료를 더 구입해 들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아니냐는 이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본관의 하루평균 이용자수가 좌석수를 항상 상회하고 있으며 자료 이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동도서관 활동에 의해서 봉사받는 측이 어떠한 부담

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부담이 주어진다면 봉사(奉仕)가 아니다. 순수하게 주는(give) 활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동도서관인 때문에 받을(take) 수 없는데에 문제는 있다.

수입을 생각할 수 없는 순수한 지출을 감수해야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마는 도서자료의 오손(汚損)도 무관심할 수는 없다. 열람하여서 남아지는 것처럼 도서관으로서서는 즐거운 슬픔도 없는 것이나 이동도서관 자료의 이용자들을 두고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점이 있는 것이다. 차분한 실내가 아니고 야외(野外)인데서 열람자들이 차분해지기 어려운 것 같았다. 따라서 책장을 넘기는데 있어 거칠고, 책상위에 책을 안정시켜 놓고 보는 것이 아니기에 책이 전체적으로 헐기 때문이다.

집약해보아서 이동도서관의 효과도 크지만 손모와 지출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무적, 정신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예정지에 대한 사전조사, 연구는 한과(課)를 신설해야 할 정도로 간단한 것이 아니다.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판단되어서 자료가 어떻게 선정되느냐는 봉사효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한 도서관안에 또하나의 도서관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부담이 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IV. 결 언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동문고의 실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과가 대단한 대신 쏟아야하는 경비와 정력의 소모도 대단한 것이다. 서언에서 든 서서비스가 제대로 행하여 지는데는 그만큼 지출되는 것을 피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효과를 목도하면서 주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도서관 부재상태의 전라남도 같은데서는 더구나 그러하다. 읽고 싶어하지 않는 다해도 도서관의 사명감으로 읽고 싶어지게 해야 할 것이어늘 읽고싶어 하는데 효과적 독서운동을 마다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동문고의 발전책은 이동문고를 기어이 유지해 나갈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의 발

견에 있다 할 것이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문고의 고민이 이용해주지 않는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현재의 상태만이라도 꾸준히 안정되는데에 있고, 가능하다면 그 안정된 이동문고의 개수(個數)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정부관계기관이 그것을 원하던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그렇잖으면 군 소재지마다 하나씩의 도서관만이라도 빨리서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독서하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 계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에 독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동문고 활동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이니 먼저 정부가 국민을 염두에 두고 확고한 도서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나라 수준의 예산을 책정하기 곤란한 것이라면 그에 가까운 예산만이라도 세워서 활동하고자 하는 도서관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요청되는 것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역사회 나름의 협력과 협조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예산은 대체적이고 종합적 고려가 전제되어야하는 만치, 그 절에 대한 보완(補完)이 지역별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공공도서관은 정부가 주는 예산보다 오히려 그 지방의 지원과 보조가 더 큰 경우가 많다 한다. 이는 선망적인 사실이 아닐수 없다. 내지역은 내지역의 자조(自助)에 의해서 자립하고 자존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는 때다.

요컨대 이동문고의 효용은 정부와 지역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도서관 설립은 고정, 피동적인 설계를 고쳐서 대외 활동의 기능과 능동적 부분에 역점을 둔 배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거액을 들여 건물을 짓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기동성 있는 대출도서관의 다수화(多數化)가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다. 스피이드화하고 있는 현실은 도서관에도 스피이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도서관을 스피이드화하는 길은 이동문고차의 개설에 있다할 것이다.

